



목차

01.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오색빛깔 조약돌』

1)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오색빛깔 조약돌』 소개	008
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목적	008
3) 문화다양성 소개	008
4)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개요 및 사업내용	009

02.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추진

문화다양성주간 행사 및 홍보	012
조약돌 네트워크	015
충청권 협력행사	018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School	023
충북문화다양성 Lab	028
충북문화다양성 주간 및 포럼	031

03. 충북 무지개다리사업 부록

충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조례	05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059

01.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오색빛깔 조약돌』

1)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오색빛깔 조약돌』 소개

- 2017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도민 모두에게 문화적 표현 자유 및 존중, 문화적 관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2022년 올해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 오색빛깔 조약돌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오색빛깔의 조약돌이 웅기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모티브로, 작은 조약돌이 어우러져 모일 때 함께 빛나는 오색빛깔의 아름다움, 즉 문화다양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충북문화재단 사업명입니다.

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목적

- 도민 대상 일상 속 문화다양성의 가치 발견 및 주체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 제공
- 지역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과 실천적 논의 구조 기반 구축
- 문화예술활동 내 문화다양성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한 목표 수립 및 추진

3) 문화다양성 소개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
-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 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

4)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대상 : 충북도민
- 사업내용

프로그램명	추진목적	유형(대분류)	유형(소분류)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주간 내 도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증진 도모 및 가치확산	홍보 및 캠페인	캠페인, 콘텐츠제작
조약돌 네트워크	지역 내 문화다양성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 네트워크 구축	정책활동	협의회 라운드테이블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School	문화다양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	교육
문화다양성 Lab	도내 다양한 축제·관광 홍보물 대상 문화다양성 기준 설정 및 평가 연구	조사연구	연구모임
충북 문화다양성 주간 및 포럼	한해 도내 문화다양성 현황 공유 및 향후 방향성 논의 기회 마련	행사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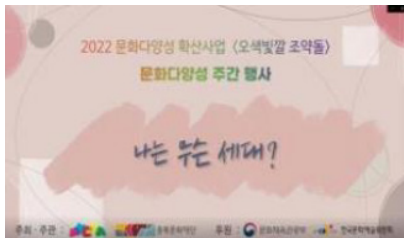
02.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추진 현황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및 홍보

1) 주간행사 및 홍보

- 사업기간: 2022. 5. 21.(토) ~ 5. 27.(금) ※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5. 21.(토)
- 사업목적: 문화다양성주간 동안 문화다양성 감수성 증진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공동체 의식 확산
- 사업내용

구분	추진	실적	정성실적
충북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홍보영상	1회	1회 3분 이내 의 영상 세대별 직장 내 존재하는 문화적 시각과 차이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x, y, z세대 3명으로 등장 인물을 구성하여 대담형식으로 각각의 세대에서 느끼는 차이를 묻고 답하며 세대간의 차이점을 알아가고 차이를 인정하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의미
	라디오 광고	56회	56회 문화다양성이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문화다양성 주간을 홍보하는 내용의 멘트를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더빙하여 라디오 송출



문화다양성 캠페인 영상 1



문화다양성 캠페인 영상 2

2) 문화다양성 홍보 콘텐츠 제작

- 건 명: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문화다양성 홍보콘텐츠 제작
- 추진기간: 2022. 5 ~ 12월
- 추진방법: 온라인
- 추진대상: 충북 도민 등
- 추진내용: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및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제작개요
 - 제작방법: 카드뉴스
 - 활용매체: 충북문화재단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문화이음창) 등 게재
 - 제작방향
 - 'ooo의 날' 등 문화다양성 주체와 관련된 날과 월 연계하여 주제별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이미지와 간략한 텍스트로 구성을 통한 압축된 내용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전달
 - 제작된 콘텐츠와 연계하여 하반기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내 프로그램 홍보 웹전단 제작 및 활용
 - 제작된 콘텐츠 활용을 통한 재단 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제작내용
 - 주제: 환경, 다문화, 젠더, 청년, 다양한 언어, 노인, 취향 등
 - 원고분량: 카드뉴스 10 페이지 분량

월	6	7	8	9	10	11	12
주제	환경	다문화	젠더	청년	다양한 언어	노인	문화다양성
비고	6. 5. 환경의 날	7. 11 세계인구의 날	-	9. 17 청년의 날	10. 9. 한글날	10. 2. 노인의 날	12. 3 소비자의 날
원고자	김말숙	정승희	김수정	심규민	최문정	이지혜	박미숙

월	주제	결과물
6월	환경	   
7월	다문화	   
8월	젠더	   
9월	청년	   
10월	다양한 언어	   
11월	노인	   
12월	취향	   




1) 정책자문회의

- 추진기간 : 2022. 4. ~ 12월
- 추진량 : 3회 추진
- 추진장소 : 충북문화재단 등
- 참여대상 : 도내 문화다양성 전문가
-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이름	지역	소속	비고
이 완	충평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인권
심규인	충주	충주청년네트워크	청년
원혜진	괴산	문화공간 그루	이주민, 예술

- 추진내용
 - 2022년 충북 문화다양성 사업 컨설팅, 평가 및 도내 소수문화 발굴
 -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 및 정책 자문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

○ 추진현황

건명	구분	참여자수	추진내용	
정책자문 회의 회의	1회차	3	-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사업에 대한 설계 자문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추진 논의 - 타 지역·기관 문화다양성 사례를 통한 이슈 발굴 및 발전 방향 제시	
	2회차	3	- 2022 충북문화다양성 이슈 발굴 및 정책발 전방향 논의 - 2022년 충북 문화다양성 사업 컨설팅, 평가 및 도내 소수문화 발굴 -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및 정책자문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발 전 방향 제시	
	3회차	3	- 차년도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방향성 논의 - 향후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과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 논의 - 도내 문화다양성 이슈 관련 논의	

2) 라운드 테이블


- 추진기간: 2022. 4. ~ 12월
- 추진량: 3회 추진
- 추진장소: 충북문화재단 및 도내 기초문화재단
- 참여대상: 충북 내 기초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및 사업 실무자 등
- 라운드 테이블 구성

지역	소속
청주	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TF팀
충주	충주중원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제천	제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 추진내용

- 지역별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정책, 제도 의견 공유
-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콘텐츠 발굴
- 도내 기초재단 및 기초지자체 대상 문화다양성 사업 확산 방법 논의

○ 추진현황

건명	구분	참여자수	추진내용	
라운드 테이블	1회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프로그램 내용 등 공유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내 업무 협조 및 연계 추진 여부 논의 - 하반기 추진 예정 프로그램 내용 및 방향 논의 - 광역 및 기초 내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확산 방안 논의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2회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공유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하반기 예정프로그램 내용 및 방향 논의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내 업무 협조 및 연계 추진 여부 논의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양성 및 활용 방안 논의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관련 네트워크 활용 방안 논의 	
	3회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별 올해연도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경과 공유 - 문화다양성 사업 취지 및 향후 목표 관련 광역·기초별 역할 분담 및 논의 - 기초재단 내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관련 방향 논의 및 문화다양성의 성과 등 논의 - 충주중원문화재단 내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결과 전시 관람 	

3) 충청권 협력 네트워크

- 추진기간: 2022. 4. ~ 12월
- 추진량: 3회 추진
- 추진장소: 충청권역 내 문화재단
- 참여대상: 충북 내 기초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및 사업 실무자 등
- 충청권 구성

연번	소속
1	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TF팀
2	충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3	대전문화재단 시민문화팀
4	세종문화재단 생활문화팀

○ 추진내용

- 충청권역별 문화다양성 사업 관련 현황 공유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실무자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등 공동 행사 추진 의견 공유

○ 관련사진



활동사진 1



활동사진 2



활동사진 3



활동사진 4

충청권 협력행사

1) 추진개요

- 건 명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충청권 협력행사 ‘세종에서 복적이기’
- 추진기간 : 2022. 5 ~ 7월 ※ 협력행사 추진 : 2022. 6. 11.(토)
- 추진장소 : 세종시 일원 등
- 추진기관 : 충청권 4개 광역재단(충북·충남·대전·세종문화재단)
- 참여대상 : 54명(충청권역 내 광역·기초문화재단, 프로그램 참여자 등)
- 주요내용 : 충청권역 문화다양성 실무자, 사업 참여자 등 네트워킹 구축 및 문화다양성 사업 관련 논의의 장 마련

2) 추진내용

◇ 추진방향

- 광역문화재단 중심 충청권 협력 사업을 기초문화재단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 실직적 참여자 중심의 대면교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매개인력 활동가 경험과 활동 실적 등 사람책으로 제작해 문화다양성 확산 및 지속가능성 강화

◇ 추진체계

충청권 협의체 회의	네트워킹 데이 개최	최종 결과물 제작 및 배포
5~6월	6. 11.(토)	7월
일정 및 프로그램 논의	교류 및 사람책 작성	결과물 활용한 책자 제작

◇ 충북권역 참여자 명단

연번	구분	인원	참여자 명단
1	충북문화재단	4	문화복지TF팀장,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 등
2	충주중원문화재단	1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
3	프로그램 참여자	10	장애예술매개자양성과정 및 문화다양성 사업 참여자 등
합계		15명	

※ 재단 관계자 참여시 문화다양성 교육 시수(6시간) 인정

3) 담당자 간담회

- 일 시 : 2022. 5. 3.(화), 5. 16.(월) / 2회 추진
- 장 소 : 서울 아코 미술관, 세종문화재단
- 내 용 : 프로그램 방식 및 참여대상, 추진 예산관련 논의

4) 네트워킹데이

- 일 시 : 2022. 6. 11.(토) 09:00 ~ 18:00
- 장 소 : 세종시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
- 주요내용 : 참여자 네트워킹을 통한 사람책 초안 제작
- 프로그램 운영
 - 진행 : 백영선 플라인웨일 대표
 - 프로그램안

도입	주요활동	마무리	후속
참여자별 아이스브레이크 이팅 및 네트워킹	참여자별 내재된 문화 다양성 반영한 사람책 제작	미니 및 앵콜발표회	결과물 반영 책자 제작 및 배포
6. 11(토)	6. 11(토)	6. 11(토)	6 ~ 8월

◇ 네트워킹데이 주요 프로그램

○ 팀 얼굴 그리기

팀원들의 특징 2개 이상을 모아 하나의 얼굴을 그려보기



○ 사람책 그리기

'나의 얼굴, 나의 여가, 나의 일'을 주제로, 인스타그램을 모티브로 하여 그림과 해시태그, 문장으로 작성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사람책을 보고 댓글 남겨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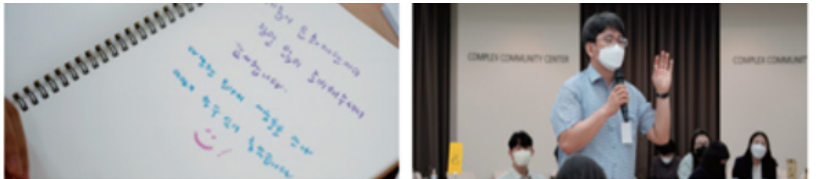
○ 미니발표회·앵콜발표회

주제 없이 참여자가 자유롭게 진행하는 컨퍼런스 방식을 활용하여 시간표에 참여자들이 언제, 어디서 발표할지, 누구의 발표를 들을지 정하여 10분마다 각8개의 테이블에서 서로의 사람책 이야기를 들어보기



○ 릴레이 리뷰

모든 참여자들이 각자 소감을 발표하고 추첨을 통해 다음 발표자를 정하고 준비한 선물 전달하기



◇ 네트워킹데이 일정

○ 09:00 - 10:00 참가자 등록, 팀 안내, 활동키트 배부



○ 10:00 - 10:10 행사소개 및 환영인사

○ 10:10 - 10:30 팀 얼굴 그리기(오전)

○ 10:30 - 11:30 사람책 인스타 작성



○ 11:30 - 12:00 작성본 공유

○ 12:00 - 13:00 점심

○ 13:00 - 13:30 팀 얼굴 그리기(오후)



○ 13:30 - 14:40 작성본 보완

○ 14:40 - 15:00 휴식

○ 15:00 - 16:00 미니발표회



○ 16:00 - 16:20 앵콜발표회



○ 16:20 - 17:00 선물교환 및 릴레이 소감 발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School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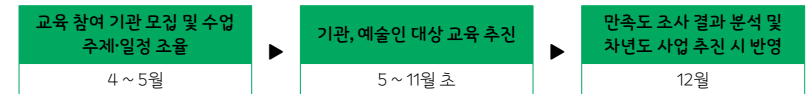
- 2021 무지개다리사업 내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아카데미’ 추진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및 예술인 만족도 조사 결과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지속적 교육 필요성 언급
-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한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 개선 향상

2) 추진개요

- 프로그램명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School’
- 추진기간 : 2022. 4 ~ 12월
- 추진장소 : 충북문화재단 및 참여 유관기관 등
- 참여대상 : 도내 유관기관 및 예술인, 도민 등
- 추진실적 : 24회 / 356명 참여
- 주요내용 : 유관기관 및 예술인 대상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3) 세부추진내용

◇ 추진절차



◇ 교육 강사 및 주제

주제	강사	강사 이력	내용
장애	문미희	나눔미축각연구소	참여자 직접 시각장애를 경험하고 공감하는 체험형 교육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 네트워크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한 교육
성인지 감수성	김수정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성인지감수성을 통해 성폭력을 바라보는 교육
	최문정	프리랜서 강사	양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
언어 감수성	최종운	인권교육연구소 핑크	일상 속 혐오와 차별 표현 관련 언어감수성 교육
문화다 양성	박미숙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기획 이사	문화다양성 기본 이해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일상 속 문화다양성을 통한 변화 및 문화다양성 확산 방법 강의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문화다양성 기본 이해

◇ 주요내용

- 도내 문화다양성 유관기관 대상 주제별 및 난이도별 3회 교육 추진
- 문화다양성 관련 기본 이해, 언어감수성, 장애 등 일상생활 속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중심 추진
-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 확산 및 중요성 공감하는 강의 추진
- 문화복지TF팀 내 지원 사업 선정 예술인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 교육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진행을 통한 차년도 문화다양성 교육 및 사업 추진 관련 의견 반영

4) 추진현황

연번	일정	지역	기관 및 단체	참여자	강사	주제
1	5. 2.(월)	청주	충북문화재단	42	이완	문화다양성
2	5.25.(수)	청주	교육극단 안	4	문미희	문화다양성_장애
3	5.31.(화)	제천	제천연주인협회	3	김수정	문화다양성_성인지
			대한시조협회 제천지회			
4	6. 8.(수)	청주	교육극단 안	2	문미희	문화다양성_장애
5	6.20.(월)	청주	월나비	17	최종운	문화다양성_언어감수성
6	7. 4.(월)	청주	월나비	11	한재운	문화다양성_성인지
7	7. 5.(화)	음성	음성군장애인복지관	21	김수정	문화다양성_성인지
8	7. 8.(금)	진천	문화예술공간 자리	15	최종운	문화다양성_언어감수성
9	7.13.(수)	충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13	문미희	문화다양성_장애
10	7.18.(월)	청주	월나비	14	이완	문화다양성
11	7.20.(수)	충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12	문미희	문화다양성_장애
12	7.22.(금)	진천	문화예술공간 자리	8	김수정	문화다양성_성인지
13	7.27.(수)	충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10	문미희	문화다양성_장애
14	8. 3.(수)	청주	청주민족미술협회	9	문미희	문화다양성_장애
15	8. 4.(목)	청주	예술인(춤으로 강의)	46	최혜자	문화다양성
16	8. 9.(화)	음성	음성군장애인복지관	27	최종운	문화다양성_언어감수성
17	8.10.(수)	청주	청주민족미술협회	9	문미희	문화다양성_장애
18	8.17.(수)	청주	청주민족미술협회	10	문미희	문화다양성_장애
19	8.19.(금)	충주	충주시성악연구회	14	김형수	문화다양성_장애
20	9.15.(목)	청주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8	이완	문화다양성
21	9.21.(수)	괴산	괴산두레학교	22	최문정	문화다양성_성인지
22	10. 22.(토)	청주	가람신작	9	문미희	문화다양성_장애
23	10. 24.(월)	단양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15	문미희	문화다양성_장애
24	11.30.(수)	괴산	괴산두레학교	15	최종운	문화다양성_언어감수성

◇ 관련사진



7. 13.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7. 18.월나비(초롱이네도서관)



7. 20.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7. 22.문화예술공간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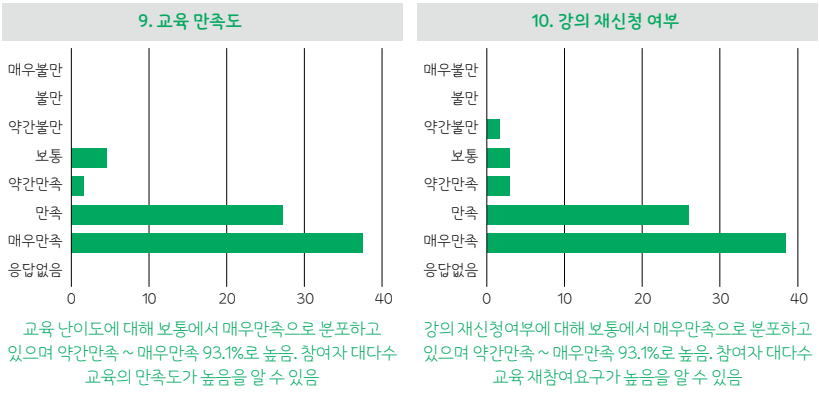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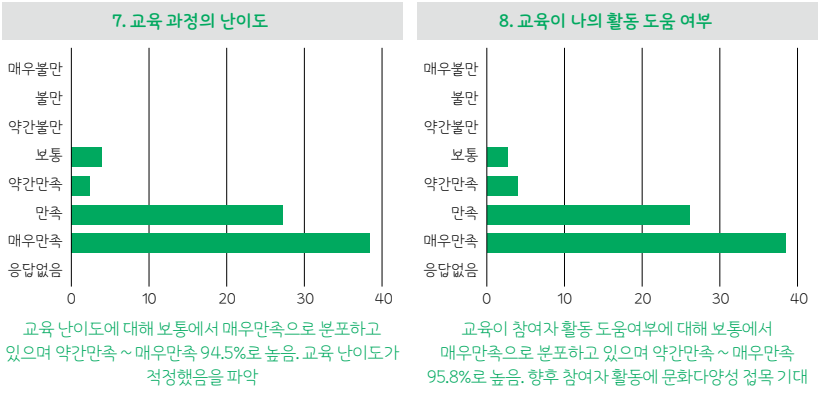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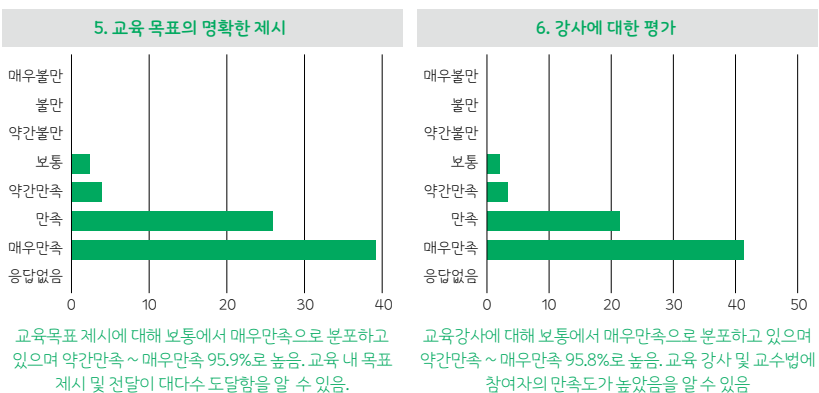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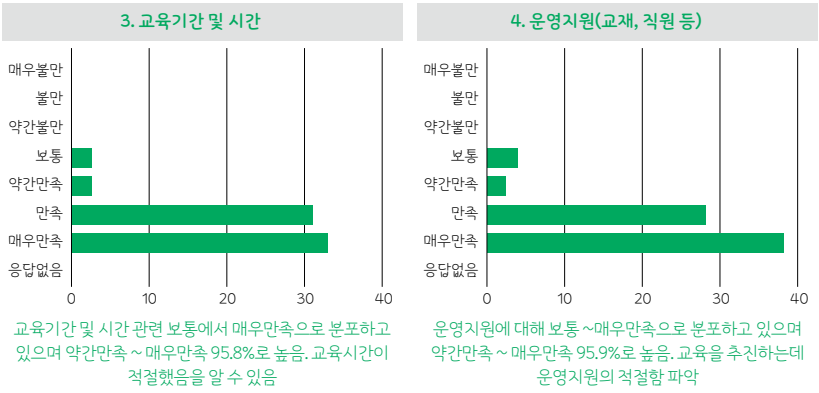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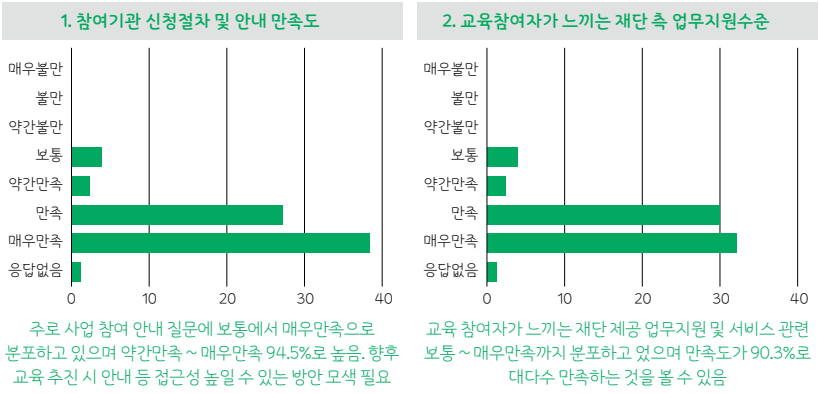


8. 9.음성군장애인복지관



8. 19.충주성악연구회

5) 만족도 조사



1) 추진목적

- 도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관광·행사 등 홍보 콘텐츠 구성요소 내 문화다양성 감수성 여부 및 표현 다양성 관련 논의의 장 마련
- 일반 도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다양성 관점 함양 및 실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 기회 제공
- 올해 소규모 도민주도형 문화다양성 랩 운영을 통한 향후 단계적 프로그램 확대 추진

2) 추진개요

- 프로그램명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충북 문화다양성 Lab’
- 추진기간 : 2022. 7 ~ 11월
- 추진장소 : 재단 대회의실 및 가람신작 등
- 추진대상 : 충북 도민 5명 내외
- 추진방식 : 오프라인
- 주요내용 : 도민 주도형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감수성 사례 및 대안 방안 연구 논의

3) 세부추진내용

◇ 추진일정



◇ 참여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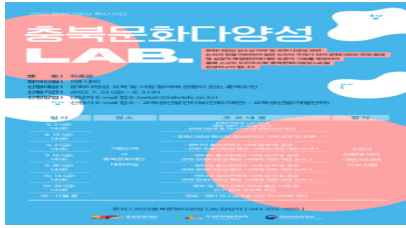
구분	멘토		멘티
	이름	이력	
참여	최충운	- 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문화다양성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도민 5명 내외
		- 인권교육연구소 펍컨 대표	

◇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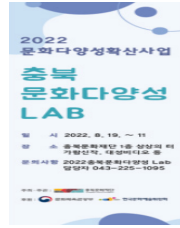
추진일정	구분	주요내용
8. 19.(금) 14:00	오리엔 테이션	문화다양성 Lab 안내 멘토·멘티 소개 및 인사 문화다양성 및 언어감수성 관련 강의 추진
9. 2.(금) 14:00	Cop 운영 1	문화다양성 훼손된 홍보콘텐츠 사례 공유 및 토론
9. 16.(금) 14:00	Cop 운영 2	멘티의 홍보콘텐츠 사례 검색 및 공유 관련 문화다양성 훼손 사례에 대한 대안 논의 1
9. 30.(금) 14:00	Cop 운영 3	멘티의 홍보콘텐츠 사례 검색 및 공유 관련 문화다양성 훼손 사례에 대한 대안 논의 2
10. 7.(금) 14:00	Cop 운영 4	멘티의 홍보콘텐츠 사례 검색 및 공유 관련 문화다양성 훼손 사례에 대한 대안 논의 3
10. 14.(금) 14:00	Cop 운영 4	멘티의 홍보콘텐츠 사례 검색 및 공유 관련 문화다양성 훼손 사례에 대한 대안 논의 4
10. 21.(금) 14:00	결과 공유회	멘토 및 멘티 문화다양성 훼손 사례 및 연구 결과 공유회 추진
12월	리서치북 제작	멘토-멘티 연구성과를 담은 리서치북 제작

◇ 추진일정

구분	일정	참여	주요내용
오리엔테이션	8. 19.(금)	6	문화다양성Lab 안내 멘토·멘티소개, 문화다양성 강의
2회차	9. 2.(금)	5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의 홍보물 모니터링
3회차	9. 16.(금)	6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충북에서 발행된 각종 홍보물 모니터링해오기
4회차	9. 30.(금)	3	소수문화권리에 대한 문화다양성 관점 토론 및 콘텐츠 관련 논의
5회차	10. 7.(금)	5	문화다양성 감수성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토론
6회차	10. 14.(금)	5	장애 관련 영상 콘텐츠 공유 및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감수성 토론
7회차	10. 21.(금)	6	문화다양성 관점 부족한 활동에 대한 논의 및 프로그램 소감 공유
합 계	36		



웹전단



배너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성과공유회1



성과공유회2

충북문화다양성 주간 및 포럼

1) 추진목적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을 기점으로 2014년부터 추진한 도내 무지개다리사업 등 문화다양성 사업 성과 확산
- 도민 대상 집중적으로 주간 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 및 인지도 제고
- 문화다양성 주간 내 도민·전문가·문화다양성 관련자의 네트워킹 자리 마련을 통한 향후 자발적 문화다양성 확산 기회 마련

2) 추진개요

- 충북문화다양성 관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및 조례 등을 배경으로 향후 중장기적 발전방향 논의
- 광역·기초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역할 논의
- 도내 문화다양성 관련 유관기관 및 기초문화재단과 협력 추진
- 2020 ~ 2022년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성과 공유 추진

3) 세부추진내용

- 건명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충북 문화다양성 주간 - 조약돌의 기록'
- 추진기간 : 2022. 9 ~ 10월
※ 문화다양성 주간 : 2022.10.18.(화) ~ 22.(토)
- 장소 : 충북문화재단 및 가람신작 등
- 참여대상 : 94명(기초문화재단, 프로그램 참여자, 일반 도민 등)
- 주요내용 : 2014년부터 도내 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올해년도 사업 프로그램 도민 대상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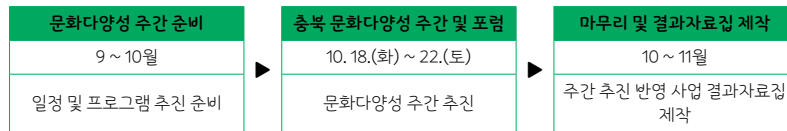
구분	지표명	실적('22년)	구성항목	비고
1	필수	참여자 수	94	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 방문자 등
2	필수	협력주체 수	3	충북 도내 기초 문화재단, 유관기관 등

4)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2014년부터 추진한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성과 공유 추진
-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추진 프로그램 집결하여 운영 및 일반도민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 문화다양성 정책, 교육, 성과공유를 한자리에 추진하여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및 가치 도모

◇ 추진체계



◇ 전체일정

일정	10.17(월)	10.18(화)	10.19(수)	10.20(목)	10.21(금)	10.22(토)
10:00 ~ 18:00	전시 및 주간 준비	기획 전시				
		opening 문화다양성 포럼	정책자문 위원회	라운드테이블	문화다양성 Lab 성과공유회	찾아오는 문화다양성 스쿨

◇ 프로그램 일정

일자	일시	장소	주요내용	비고
10. 18(화)	14:00	로비	문화다양성 포럼	
10. 19(수)	09:00	로비	조약돌 네트워크 - 정책자문위원회	
10. 20(목)	14:00	로비	참여자라운드테이블	
	19:00	로비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양성과정 성과공유회	
10. 21(금)	14:00	로비	문화다양성 Lab 성과공유회	
	19:00	지식	지식 기획 공연 : 지역내 활동 인디독립음악	연계 프로그램
10. 22(토)	14:00	로비	찾아오는 문화다양성 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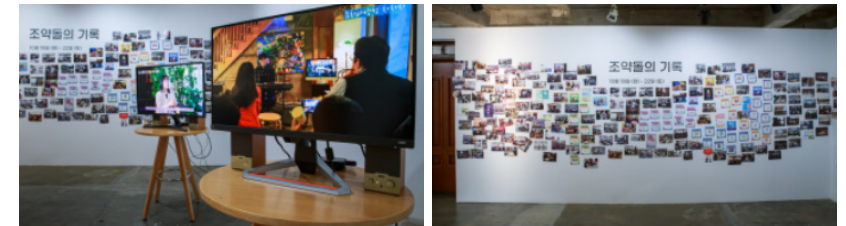
◇ 추진방법

재단 내 문화다양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타 사업 연계 추진

◇ 세부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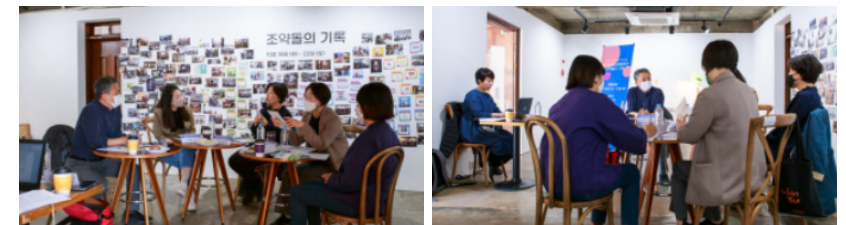
① 조약돌의 기록 기획 전시

- 기간 : 2022. 10. 18(화) ~ 23.(일)
- 장소 : 가람신작 현실
- 내용
 - 2014년부터 추진한 문화다양성 사업 성과
 - 2022년 프로그램 결과 및 미디어 콘텐츠 전시
 - 방문객의 즉석 전시 운영



② 문화다양성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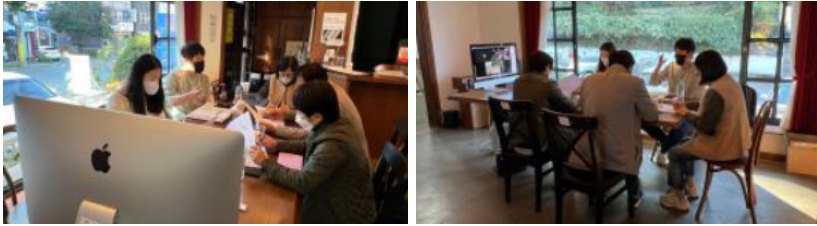
- 일시 : 2022. 10. 18(화) 14:00 ~ 17:00
- 장소 : 가람신작 현실
- 내용
 -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논의
 - 문화다양성의 적용방안에 대한 토론
 - 문화다양성과 연계된 기관, 담당자의 역할 관련 논의



③ 조약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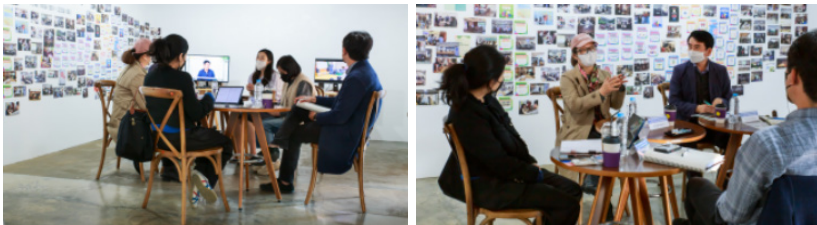
가. 정책자문위원회

- 일시 : 2022. 10. 19.(수) 09:00
- 장소 : 가람신작 로비
- 대상 : 3명
- 내용 :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성과 전시 관람 및 올해년도 사업 관련 의견 공유·향후 사업 방향 논의



나. 참여자 라운드테이블

- 일시 : 2022. 10. 20.(목) 14:00
- 장소 : 가람신작 로비
- 대상 : 00명(충북, 충주, 제천문화재단 실무자 등)
- 내용 :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관련 차년도 협력 프로그램 기획 논의



④ 찾아오는 문화다양성 School

- 일시 : 2022. 10. 22.(토) 14:00 ~
- 장소 : 가람신작 현실 및 로비 활용
- 내용 : 시각장애에 대해 예술적 체험을 통해 이해 및 경험
- 강사 : 문미희(촉각나누미연구소장)
- 내용
 - 2022년 찾아오는 문화다양성 스쿨에서 차용하여 문화다양성 주간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 충북도민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하여 도민에게 문화다양성 관련 흥미와 관심 유도



5) 연계프로그램

- 콘텐츠 누림터 유지강화 사업 - 지직 기획공연 'Freaky Friday'
: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 인디음악 뮤지션의 기획공연



- 충북 문화다양성 사업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양성과정 '多·多·多' 성과공유회
: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 인디음악 뮤지션의 기획공연

6) 문화다양성 포럼

전영주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 TF팀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전영주 팀장입니다. 오늘 포럼은 충북문화재단에서 10년 동안 해왔던 문화다양성 사업을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이 문화다양성 사업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끌고 가는 이유와 목적을 환기하고, 내년에는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며 있었던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누어주시면, 기록하고 결과 자료집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 때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내년에 좋은 사업,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사님 인사 말씀을 듣고 참여자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김승환 안녕하세요.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충청권, 강원권을 비롯하여 전국을 이끌어가는 문화다양성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니, 오늘의 기록을 잘 남겨 두면 이게 다 씨앗이 되고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여 다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주 참여자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먼저 환경 부문,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김말숙 님. 2014년 쯤 제가 무지개다리 실무자를 맡았을 때 많은 자문을 주셨던 이주여성센터장 정승희 님. 충북의 문화예술 교육 실무자, 현장 기획자, 진천 문화예술 공간 자리 대표 이지혜 님, 오늘 노인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주실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다 공주에 자리를 잡으신 유구리 최실장 최선영 님, 장애인 파트라고는 하지만 지금 전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이나 생활문화 쪽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에 영월 작은박물관에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마을에 내려오신 영월 삼돌이 마을 활동가 안승배 님. 기록자로는 괴산에서 활동하시는 2022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정책자문회의 원혜진 님. 그리고 예술인 복지 관련된 활동과 실무를 맡고 계시는 문화복지 TF팀 박슬기 과장님. 문화다양성 실무 김성희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간은 가람신작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충북도청 뒤에 위치한 한정식집으로, 지사님 VIP 손님들 오시면 모시곤 했던 식당을 충북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전시도 하고 토론회 등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지만 이런 공간이 문화다양성 부분들과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전반적인 소개는 마치고 박슬기 선생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례, 충북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충북의 문화다양성 사업을 어떻게 끌고가면 좋을지 좋은 의견 주시면 잘 반영하여 내년에 좋은 사업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슬기 박슬기라고 합니다. 문화다양성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맡게 되었습니다. 흔히 문화다양성이라고 생각하면 장애, 인종, 다문화, 환경 등 소수의 사람들 이야기로 국한될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점점더 다양하게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각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선영 선생님께서 사회를 맡아서, 문화다양성 범위의 확산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선영 제가 사회라고는 하지만,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문화다양성 사업이 원래 사업 방향이 대상자 중심이다보니 이런 방향성을 탈피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각 전문 분야가 있고, 활동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재단에서 정리해준 카테고리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관심사가 겹치거나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해진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받았지만, 각자 속해 있는 기관이나 공간이나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지, 요즘 문화다양성 관련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를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죽 들어볼게요. 그리고 질문도 드리고, 이걸 토대로 또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승배 안녕하세요~ 삼돌이 마을의 굴러온 돌입니다. 우리는 돌로 표현해요. 원주민을 박힌 돌, 저같이 이주민들을 굴러온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귀농귀촌할 분들을 굴러온 돌이라고 하고, 이렇게 삼돌이가 행복하게 어우러져 살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문화다양성 사업을 했었어요. 2018년도에 영월에 있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이야기를 듣다가, 삼동마을이라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았습니다. 영월읍에서 한 시간 걸립니다. 원주 횡성이라 붙어 있어요. 영월읍에서는 가장 외진 지역이라서 낙후된 지역이지만, 그만큼 경치도 좋아요. 서울경기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죠. 지금은 굴러온 돌이 80프로가 넘어요. 보통 한 해에 한 열 분 정도씩 돌아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곳입니다. 이 마을을 굉장히 매력적이라구요. 가보면 알잖아요. 그 해에 문화재단에 사표를 내고, 마을에 들어갔어요. <삼돌이 생각>이라는 책을 냈어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들만 좀 담아보자, 하는 생각에 책을 내고, 다큐도 제작했습니다. 삼돌이 생각은 매해 내고 있어요.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죠. 문화도시 준비하면서 팀 맡아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문화도시 문화다양성 본과에서 본과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본과에서 만든 거예요. 이주민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책 보여줌) 제목이 베트남 티. 이런 책을 낸 이유는 언어가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별 거 아닌 에피소드예요. 예를 들어 시아버지 친구들이 “베트남 티가 좀 나네?” 하고 말을 한 거에 대해, 시아버지가 생김새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런 시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마을에서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7개인데, 주민 221명이 일주일 내내 동아리 활동을 해요. 동아리 활동은 주민들 간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어촌 희망 동아리 사업 등 지원사업을 받아요. 공공의 돈이 들어오면 공공의 활동을 해야합니다. 물론 참여자들의 자부담도 계속 들어가요. 지원금을 받아도 자부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목도리 151개 떼서 우크라이나에 보냈어요. 그 실 값, 활동비 등을 모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김말숙 책 내용, 글이 참 좋아요. 전국에 배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주민의 표현이 이렇게 훌륭하다니 놀랐어요. 설득하고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이야기 가운데 깨달도록 하는 힘이 있네요.

안승배 2018년도 사무장이었던 활동가가 썼습니다. 연고도 없는 마을에 와서 눌러앉게 되어서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분이 블로그도 많이 하시고, 글을 되게 따뜻하게 쓰시더라고요.

김말숙 베트남티가 베트남 차(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같은 티가 난다 하는 이야기네요.

정승희 정말 글이 참 따뜻해요.

안승배 처음에는 책 예산이 4권 예산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참 좋거든요. 하다보니 15권을 냈습니다.

김말숙 내용이 훌륭해요. 전국의 다문화센터나 도서관으로 다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승희 저희는 상담소인데, 저희 보내주셔도 좋겠구요. 저희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지역에 있는 이주 여성들의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절기 관련된 음식, 음식 관련한 민담이나 옛날이야기 등을 엮어서 책으로 내고 싶었어요. 시리즈로 내고 책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못 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 참 따뜻하고 좋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하는 일이 이주 쪽이다 보니, 그 동네가 많이 궁금해지네요. 그 동네를 한번 찾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무릉도원인가요?

안승배 원래 이름은 수주면인데 거기 무릉리와 도원리에서 따와서 무릉도원면이 되었어요.

최선영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본인은 별 거 아닌 것이라고 하지만,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개별화된 삶의 가치들을 조명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시각이 삼돌이 마을에서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니까 공감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지혜 선생님 이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저는 2015년에 단체를 만들었어요. 자리는 공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대상은 노인이고, 노인음악교육연구소라는 아주 명확한 이름을 지었어요. 대체적으로 다른

분들은 단체의 이름을 두루뭉술하게 짓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2016년부터 지원사업, 예술강사 활동 모두 한 우물만을 파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우물만 파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어린이와 똑같이 취급하고 어린이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싫었어요. 나도 결국 노인이 될 것이니까요. 누군가 변화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노인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다양한 노년과 현실감 있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다음날 갑자기 노인이 될 수 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 노년학을 공부하러 학교에 갔습니다. 내가 만난 노인이 최선인지, 다른 노인들은 어떤지 석사과정을 하니, 달라졌어요. 물론 제가 경험이 쌓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사실 처음 악기를 접하는 아이부터, 대입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훌륭한 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노인을 아우를 수 있는 강사여야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양한 노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분, 우울한 분, 지금은 행복하지만, 지난 과거에 불행했던 노인..... 각각의 처지의 노인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하더라고요. 마음자세부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드를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노인까지 케어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은 문화예술이 아니라 복지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했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어르신들이 국악이나 난타는 익숙하지만, 피아노는 전혀 새로운 악기죠. 그리고 하모니카같은 악기는 손쉽게 수업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피아노는 악기의 덩치가 크고 이리저리 옮기기 어려운 사정상, 가르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악기의 구조상, 강사 한 명이 15명의 강습을 할 수 없구요. 그래서 작년에 <내 생애 피아노 한 번> 사업을 시작했어요. 열두 분을 모시고 15주 진행했습니다. 사실 제가 16년, 17년, 18년 3년간 활동 후, 19년에는 안식년을 가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으로 품어주는 할머니가 아닌 분들도 있었고, 상처를 입게 하고 본인은 안 나가는 분도 계셨거든요. 제 스스로 안식년을 가진 후 피아노 강습을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노년의 프로그램이 이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아노 첫 시간에 “나 못 해, 안 해 봤어.” 하실 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몰라서 다행이에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조금 알고 아는 척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첫 날은 종이에 피아노를 그려서 검은 건반을 색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드렸죠. 저희 공간이 2층이거든요. “2층까지 걸어올라오셨으면 건강하신 거예요. 그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날은 피아노에 앉아서 도를 누르고 가셨습니다. 굉장히 만족하셨구요. 그 다음 일이 도레미를 배우고 비행기를 치셨습니다. “미레도레미미미” 70년 평생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불러보셨다고 해요. 삶에 있어서 처음인 기회를 드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시작한 분들을 요번 사업에는 보조강사로 활동하시게 했어요. 그 때 사업이 홍보가 잘 되어서 이번에는 많이들 오셨어요. 새로운 인원이 왔고, 이전에 배우신 분들이 보조강사가 된 거죠. 시니어 예술강사. 그 이름 하나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올해에는 모든 것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예술강사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따뜻한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최선영 고민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예술가가 매개자가 되었을 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김말숙 피아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지혜 자리가 공간이 좀 넓습니다. 70평. 그래서 피아노를 놔둘 수 있었어요.

김말숙 70평은 어디에서 구하셨어요? (웃음)

이지혜 시장 안에 있더라구요. (웃음)

최선영 제가 진천 자리에 가봤는데, 진짜 넓어요. 청소는 누가 해요?

이지혜 제가 해요. 집도 못 치우지만.. (웃음)

정승희 2회 차에 비행기를 연주했으면 15회 차에는 어디까지 연주를 했나요?

이지혜 그걸 이야기를 드리자면 작년에는 보조강사님이 있었지만,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도와주시는 정도였는데, 그 때는 오른손만 고향의 봄을 치셨어요. 올해는 배운 엄마들이 보조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더 빨라지신 거예요. 배운 엄마들이 “피아노 있어야 연습할 수 있어” 하면서 선배로서의 조언을 주시더라구요. 그러니 키보드를 직접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집에서 연습을 해오셨어요.

최선영 무엇보다 실력이 느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자발성이 나오네요.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승희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하니까 연습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고, 실력이 늘면 또 행복하고,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고 정말 행복하셨을 거 같아요.

이지혜 네. 뒷이야기를 좀 하자면 어르신들이 올해 5월 30일에 내 생애 첫 연주회를 했어요. 배운 걸 우리끼리만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 어차피 공간이 넓으니 우리끼리 연주회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끼리 연주회를 한 거죠. 그날 가장 최선을 다해 이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손님을 부르지 않은 대신, 영상에 담아서 페이스북 실황을 하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조회수 폭발적이었습니다. 본인이 120번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핸드폰 활용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음악 학원이 아니고 피아노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닌데, 피아노를 깊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셔서, 음악 이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배우고 싶어하셔서 음악 이론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5일만에 구독수가 630이 넘었어요. 노인의 갈증이 무척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선영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때문에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거 같아요.

김말숙 올해에는 제대로 연주회를 하면 좋겠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영 다음에는 김말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말숙 저는 7월 31일까지 청주 환경센터 사무국장을 하다가 충북 센터의 사무국장이 되었어요. 사업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충북 여러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제가 처음 환경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청주시 산남동 두꺼비 살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이후 활동을 넓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럼에 참가하게 되면서, 제가 환경 전문가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문화다양성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달아있고,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제가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했으니까요, 개구리 종류만 보아도 12종류가 있거든요. 양서류 공부를 하다보니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과 땅이 깨끗해야 생물이 잘 살 수 있어요. 개구리는 잠자리와 곤충 등을 잡아먹죠. 저는 환경 운동을 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자연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곧 자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천 너머의 환경연합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면서는 환경 현황 대응을 하게 되었어요. 2013년부터 환경 초록마을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17개 마을이 참여했고, 매년 새롭게 모집해요. 자연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죠. 이러한 공모 사업은 마을에서 어떻게 활동할지 마을에서 결정합니다. 마을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활동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구요. 지금은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숲, 여기는 나무, 여기는 물, 이런 식으로 전에는 단체마다 영역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들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다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불편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드라이를 할 때, 드라이를 끊어야하는데.” 그런 것처럼. (웃음) 전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환경운동을 할 때에는 1회용 컵을 보아도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웃음)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해요. 과연 이러한 작업을 터닝포인트를 지킬 수 있을까. 꿈이 아닐까.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식이 들죠. 어쨌든 환경 교육을 이야기하다보면, 결국 결론은 나부터 시작하자. 너무 미미하고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또 곰곰이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는 없으니까요. 환경에 대한 활동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교안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교재 교구를 만들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케릭터도 만들고 컬러링 북 만들기 같은 활동도 했는데, 좋아요. 예술하고 함께 연결이 되니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사실 이 자리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계속 친하게 지내려면 어떤 건지 알아보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최선영 네, 생물다양성부터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김말숙 선생님께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안승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을 소개를 할 때 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2010년 초반에 농촌에서는 농악폐기물을 땅에 묻고,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귀촌인가가 늘어나면서 비닐 태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농촌을 보며, 시골사람들이 무식하다고 같듯이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 마을이 다른 시골마을처럼 “칠삭둥이가 이장을 해도 외지인은 이장을 할 수 없다.”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현 이장님이 귀촌하신 분에게 이장을 넘기면서, 이 분들이 트럭을 가져와서 마을사람들과 함께 치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힘도 없고 차도 없으니,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태우는 거라, 해결이 안 되죠. “누가 내 땅에 쓰레기를 묻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우리 마을에서는 이장이 갖다 치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작은 문제에서 시작하는 갈등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갈등이 시작이 되어서 갈등이 커지잖아요. 농촌에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2019년도 귀농귀촌인들 원주민 조사를 했습니다. 이주민 꼴 보기 싫은 거 1위로 뽑힌 것이, 측량하고 펜스 치는 것입니다. 사실 농로는 개인의 땅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로는 차가 다니다보니 점점 넓어지게 되고 서로 같이 쓰는 땅 개념이 되죠. 하지만 외지인들은 측량을 하고 한 평이라도 내 땅을 내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농로는 같이 써야 하는데, 서로의 문화를 이해못합니다. 이게 갈등의 시작입니다. 환경 운동 이야기를 들으며 환경 운동도 많이 힘드시겠다, 많이 싸우시겠다는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최선영 30년 수도권에 살다가 유구리로 갔는데, 옆집 할머니 쓰레기 태우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여기로 냄새가 다 난다고, 제발 태우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응”하고 하시고는 다음날 또 태우세요. (웃음)

김말숙 제 남동생도 농촌에 사는데, 쓰레기를 다 태우더라구요. 저는 환경 운동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 모임할 때 나무젓가락도 눈치 보면서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는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면 갔을 때 그 쓰레기를 다 담아옵니다. 일단 저는 청주의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서,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다 들고 와요. 그렇게 하는데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습관을 바꾸는 것도 힘든거고, 이 문제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체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선영 그렇죠. 유독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치우기가 힘드시니까. 저희 오늘 이야기가 계속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 거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정승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죠.

정승희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듣다보니, 다문화라는 말, 이주여성이라는 말이 참 불편해요. 저는 여성운동가이기도 하고, 여가부 폐지 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운동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 저 자체가 일본에서 오래 살며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기도 했거든요.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불편함을 아니까,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문화에 무지해서 불편함을 겪는 것이 비슷하더라구요. 겪으면서 보니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활동은 삶이 곧 그대로 현장이예요. 특히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받는 현장입니다. 저는 그걸다 겪어봤거든요. 선생님들이 각자 현장에서 하는 활동과는 좀 다르게, 이주 여성 운동을 하는 저희는 차별의 문제, 혐오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저희는 정책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민족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인구의 5퍼센트를 넘으면 다문화 다민족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국 230만명이니, 거의 다 된 셈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특성상, 특히 식량 생산을 하는 도시인 음성인 인구가 10만인데, 그 중 등록된 인구만 1만 5천명 이상, 유동 인구까지 합하면 3만명이 넘어요. 이 분들 대부분이 간병인, 공단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거 자체가 열악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보는 이주민 관련 소식은, 왜곡된 것이 많아요. 한 명의 외국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면, 모든 이주민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종교 모임을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일도 있구요. 사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대한 불편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었어요. 농촌 주거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주거를 보급하고자 하는 거죠. 23개 가구 실태조사를 하러 다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농촌 농장주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채네는 게을러,” “돈 더 주는 곳으로 가버리더라구,” “왜 저들과 우리가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해?” 노동자들이 부족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가 없어, 하는 거죠. 노동시장을 다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노동자를 구할 수 없으면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또 그런 말도 하죠. “우리도 옛날에 선진국에 가면 그들의 30프로만 받고 일했는데, 우리는 왜 다 줘야 하나?” 그 급여를 주고도 다른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으면서도, 23분 중에 21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이지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사람들처럼 시간에 따른 급여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승희 있어요. 고용계약서를 쓸 때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주거 비용으로 15%를 뺄 수가 있는데 좀더 현대화된 주거를 마련해주면 20%를 뺄 수가 있어요. 노동부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이거든요.

이말숙 그러면 사장님이 집을 마련해주고 집값을 과도하게 떼어가는 거군요.

정승희 그렇죠, 그 주거비용을 과도하게 떼는 거예요. 잔업을 해서 월급이 많아지면, 방값도 올라갑니다. 방은 똑같은데, 일을 많이 해도 돈을 더 떼어가니까, 받아드는 돈은 똑같아요.

이지혜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 돈이 그 돈이네요. 잠은 더 적게 잤는데.

정승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현장은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등하지 않아서 겪어야 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예요. 건장한 외국인들이 모여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주 쪽에서 여성 문제를 보면, 결혼이민자는 10퍼센트밖에 되지 않아요. 이주 여성 중에는 결혼이민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동포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혼 이민자로 한정해서 보면, 이 분들이 중개업을 통해 왔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났는데 한국어를 못하니까, 너는 왜 말을 못하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너 돌머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언어적인 정서적인 폭력이에요. 문화다양성에 관한 예뵈고 따뜻한 글들도 보았지만, 사실 이주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차별의 문제, 혐오의 문제입니다. 여성들의 문제를 보면, 성차별 문제 심각하구요. 말씀드렸드시피, 여러 가지 중첩된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라는 표현은 동남아시아 국제결혼한 소수 사람들의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주 운동을 들여다 보면, 끊임없이 싸워내야하고, 정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인데 말이에요.

최선영 네, 말씀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첨예한 사회적 이슈, 불합리한 상황들, 정책의 한계, 변화의 필요성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이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함께 결합할 필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회가 더 복잡해지니까요. 장애도 비슷해요. 그런데 장애 부분에서는 혐오의 시선이 있지만, 동정과 보호의 시선의 부분이 좀 다르죠. 저는 2007년부터 창작이나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해왔습니다. 첫 시작이 우연하게도 특수학교 수업이어서, 15년 전에 수업 보조 일을 전에 시작했다가 관심이 생겨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왔어요. 전교생이 40명 정도 되는 시골 초등학교인데, 1,2,3학년 14명 중에 한 명이 발달 장애가 있고 한 명은 경계성으로 보입니다. 세 명 정도는 이주민 부모님으로 둔 것으로 보이고, 정서적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14명의 학생들 안에서도 참 다양하죠. 시골 학교에서는 더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활동을 할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을 더 대상화하는 프로그램들 전문가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지만 훨씬 인간적이에요. 장애라는 것만 보면, 저는 장애인을 발달 장애 청소년이나 성인 발달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오니 노인 분들이 장애가 많아요. 시골 버스를 타고 공주터미널까지 오는 50분 동안 거의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타세요. 오히려 장애인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의 장애 프레임과는 다르죠. 지역 간 격차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은 장애 이슈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발달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한다든지, 청와대에서 발달장애 창작자들의

전시를 연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예 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한 5~6년 전부터 장애예술이라는 말도 정책적 등장하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커지기도 했구요. 보통은 장애 관리는 복지로 내려왔거든요. 예술인을 볼 때에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봐야하지만, 실제로는 비장애인 예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예술시스템적으로 일반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일반적인 복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으로 확대가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는 날 것 그대로의 발달장애인의 표현 활동, 막 쏟아지는 창작물이 좋아서,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을 몇 년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번 두번 전시를 하면서 가족들의 기대가 생기면서, 우리 자녀의 굶주는 언제나 이렇게 논의의 방향성이 굉장히 좁아지더라고요. 활동의 기회가 굉장히 좁았던 사람들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대가 커지는 것, 다른 양상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은 그 단체를 안 하기도 하고 오히려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그런 단체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교육도 하고 있구요. 그런 와중에 오늘 자리도 함께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인군을 특정 집단군으로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 특성상 실제 장애의 유형이나 특성 때문에도 개별성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자기 삶의 서사를 멋있게 풀어주는 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장애인의 개별성은 비장애인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이 세계를 탐색한다는 게 어렵지만, 사실 예술가들 입장에서선 또 흥미로운 거예요.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도 많아요. 장애를 동정의 대상이나 장애 유형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개별성의 영역으로 해석해서 좀 재미있게 같이 할 수 있는 것 찾고 있습니다. 중복의 많은 장애예술교육활동 등을 하며 대화를 많이 해보니,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저는 이렇게 착해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에 대한 대상화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쉬워요. 적게는 몇 달 길게는 2년 가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떤 분이 장애를 가진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사실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싫어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해요.” 그러면 “왜 싫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질문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기도 하고 했어요. 지역마다의 상황이 다른 것 같고, 사람을 보편적인 대상으로 묶을 수 없죠. 수혜자를 개별자로 호명하는 것. 현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선을 긋기도 하구요. “장애인이 아니니까 모른다” 하며 복지의 대상이 되는 프레임으로 들어가버리거든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문화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큰 이야기가 아니라, 넓은 이야기라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 나에게도 연결된 이야기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오늘 나온 이야기 중 공통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쨌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나, 사회정책적인 분야 이슈 해결보다는 문화예술로 연결되었을 때 어떤 방향성, 어떤 방식으로 풀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참 모호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지만요.

김말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릭터 로고 이런 거를 만들고, 전시하고 문화생태공원 마을의 역사 전시 이런 걸 예술로파견지원사업으로 만들었어요. 작년하고 올해에는 교재 교구 개발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홍보물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술가가 투입되어서 전문가가 만드니 확실히 다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기 쉽고, 활용할 수 있는 꺼리가 됩니다. 결과물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최선영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이지혜 제가 노인 혐오, 이주민 혐오 등 이런 이슈를 보다가,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카테고리에서 미디어의 영향이 참 크더라고요. 노인 혐오, 인간 대 인간의 혐오. 선입견을 가지게 하죠. 청소년의 나쁜 이슈는 금방 잊어버리고, 노인의 혐오는 오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화도 성장과정이고. 노년이 되는 것도 한 생애의 주기일 뿐인데 말입니다. 모두가 나에게는 그 과정이 안 왔으면 하고, 노화가 늦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문화예술로 미디어 노출로 자극적이지 않고 접근하고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주민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진천은 이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먹여살리더라고요. 한국사람들은 스타필드 가고, 이주민들은 전통시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사실 시장통 안에서 빠르게 운전하시는 이주민을 보고, 나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창피하기도 해요. 외국인 분들 중에도 젠틀하신 분들도 많으시구. 장애인 문제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향으로 “우리 애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요?” 하는 분들도 많으시구요.

김말숙 많아요. 두꺼비 공원에서 초청영화상영을 했어요, 그때 정은혜 작가를 봤는데 멋지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오셔서, 모녀 인터뷰를 보니 둘이 투닥투닥하는 것이 참 귀엽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다 부모의 힘이다 하는 거죠.

최선영 부모님께서 엄청 열심히 하세요. 진짜 큰 역할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정승희 저는 이주민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전통시장 이야기를 하했는데, 이주민들이 다 먹여살려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 반말이에요. 약간 낮게 보고 이야기 하는 거죠. “이거 뭐?” “돈은 있어?” 이런 식으로

김말숙 운동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정승희 맞아요. 저도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보호 카드뉴스를 썼었거든요. 한국기자협회에서 인권 보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인권에서도 의존적인

존재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보도 지침이 있어요. 언론의 영향은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각자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하게 하고 내일도 함께 하려면 언론을 바꾸는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실 <무지개다리>는 2008년 다문화 강사 사업단 이름이었어요. 충북에서 오래 운동을 했었고 전국적으로도 꽤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명칭을 문화부에서 회의할 때 사용했었구요. 다문화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 문화는 열악한 거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음식 만들기나 춤 배우기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이주 여성들이 각각의 언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구요. 결혼 이민자의 국가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고 치면, 노동자의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만나는 지점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노동자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으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말숙 그럼 진짜 정책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승희 네, 그리고 체류하고 물려있어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말씀하는 것처럼 정책과 체류권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이 바뀌어야 하구요. 지역에 왔을 때 주민으로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말숙 주민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다가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15명이 모여 있어도, 사람들이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정승희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넘 중요해요.

최선영 이주민의 이슈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의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든 아니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만나는 방식에서부터 정책적으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네요.

김말숙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의 문제와 인건비같은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죠.

이지혜 이런 사례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019년에 <안녕 프리벳>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한 학교에 9년 방과후 강사로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3~4번 바뀌는 동안 계속 있으면서 학교의 흐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첫 회 때는 안 그랬는데 학교에 외국인 아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같은 반인데도 서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에, 한국 친구들이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못 걸겠다고 고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악기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하는 축제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다 공연을 구경하러 왔어요. 부모님도 아이가 동네 잔치에서 뭘 한다니까 너무 기특해하시고, 아이 입장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어 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키구요. 처음 어머님을 뵈었는데 말은 못하고 서로 웃으면서 아이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었어요. 이런 기회를 중간에 넣어서 또 한번 마주치는 경험을 했으면 좋았겠다 아쉽더라구요. 아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계기로 부모님과도 함께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주민도 부모니까요.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같아요.

정승희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다 소진시키는 것처럼 왜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짓 정보죠.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못 샀었어요. 외국인들은 외국어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마스크를 살 수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다 소진한다, 가족들이 들어와서 소진하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한다 이런 의견이 인터넷으로 돌고 그러다가 진짜로 2019년에 바뀌었어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의 15세 미만 아동, 유학생을 빼고는 나머지는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주민 관련 운동가들이 마스크를 사서 이주민에게 키트를 만들어 보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사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들어와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죠. 오히려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선주민의 건강보험 손실을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최선영 참예한 이야기네요.

안승배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다보니 할 이야기가 많네요. 저는 현장에서의 생활이 좋아서 그냥 마을로 아예 내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문가 중심 교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좋아서 활동을 하는 본인데, 전문가 분들이 잠깐 와서 이런 저런 걸 지적을 하고 알려주고 가거든요. 현장에서 그걸 모르지 않아요. 더 실질적인 이야기, 정보,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죠. 저도 끈대인 것 같은데,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구요. 치약을 짜는 방법으로도 싸우죠.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게 문화예술 문화다양성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정순왕후 선발대회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영월에 정순왕후 즉 단종비를 선발하는, 유부녀 선발대회인데 그 분들은 그 대회가 단순 미인대회가 아니더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십수년간 해왔던 것이 비판을 받고 미인대회로 치부한 것을 두고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서로 의견의 차이를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설득을 하면서 속도 조절에 좀 실패를 했어요. 단계가 있는데. 그런데 여성단체 협의회장도 비판을 한

이유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하긴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노동자들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 이주 여성 이야기 들어보면 머느리 야반도주할까봐 밖에 못 나가게 한다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잘 지내요.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다 안 싸워요. 대부분은 잘 지내요. 싸우는 사람들이 문제지.

김말숙 언론에서 대부분 싸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정승희 언론이 문제야.

안승배 그리고 우리 인식이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을 바라볼 때, 흑인 백인 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동남아인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구요. 아랍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도 있구요. 지자체마다 문화다양성 부서를 만들면 종교인들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교육 몇 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좋은 의도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아요.

정승희 인권 조례 못 만들잖아요.

안승배 그리고 선의로 한 행동도 사실, 좋은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주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일제 시대에 창씨개명 있잖아요. 그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선의로 한 것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

김말숙 우리가 좀 편하게 불러볼라고. (웃음)

안승배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의 판단이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 자체가 너무 다양한데, 그걸 또 문화다양성이라. (웃음) 정말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교육을 할 때에는 관계 맺음, 지속성, 그리고 일상 속에서 계속 이 만남들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선영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상성 지속성 관계성이라는 게 문화 특히 예술 이전의 문화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도 삶의 가치를 공유하기도 하구요. 그 안에는 아름답지 않은 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되게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공공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등장할 때는 너무 아름다운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한 것들, 특히 오늘 이주민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낯설고 제도적으로 투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불편함이 그대로 등장할 수 있는 것도 문화예술 영역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은 불편한 것도 따뜻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것도 있고,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불편함을 드러내주거나 질문해주거나 발언하거나 소리치는 영역으로 문화예술이 좀 같이 가면 의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영주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보니, 저 뒤에 있는 사진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사업들도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질문으로 나온 문화예술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화재단 직원이고 문화다양성이라는 부분은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하되, 우리는 대상의 타겟보다는, 예술 행위나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일상성 관계성 그런 것들을 좀 예술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그래서 소재 자체를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가 분들이 하실 영역은 전문가한테 맡겨드리고 저희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같이 와서 관계를 맺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문화재단에서 좋은 사업들이랑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최선영 떠오르고는 있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문화예술로는 해결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이지혜 문화복지라고 하잖아요. (웃음)

최선영 올 초에 성동문화재단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목이 <사회가 불평등하다는데 예술이 뭘 할 수나 있나>예요. 이것에 공감하는 예술가들과 우리가 정말 뭘 할 수가 있나 해 본 거예요. 그 때 좀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노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겠다 했던 분이,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는 시간에 똑같이 새벽마다 나가고 엄마가 걷는 시간만큼 자기도 걸어보며 엄마의 마음을 공감해보려고 했어요. 엄마를 교육해서 엄마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엄마를 공감하려고 하는 예술가의 행위로 참여한 거죠. 나중에 결과물을 볼 때 우리가 다같이 울었어요. 그래, 이거지! 예술가는 이렇게 리얼한 방식으로 뭔가 하는것이지. 이건 이제 예술의 영역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기도 하고, 문화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좀 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거대한 이슈 복잡한 문제를 정책이나 예산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앞에서 문화예술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문화다양성 논의 안에서 좀 구체화되면 좋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정승희 경찰서에서 만난 여성이 “한국어 배우러 가는데 남편이 가지 말라고 때렸다.” “다문화센터에 못 가게 한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자국어를 말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지금은 이중언어를 가지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나, 하나의 자산을 가지는 거 아니냐 하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교육부가 참여해서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고 이중언어 대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가 두 개의 언어를 하네 하고 약간 뿌듯함을 갖게 합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바뀌주는 거죠. 요즘 이주 여성들은 국적을 바꾸게 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가족들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외국 사람라고 차별 지어지는 것이 싫어서 이름을 바꿉니다. 불편한 거죠. 저는 그 불편함을 따져보고 싶어요. 불편함을 따져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문화다양성의 문제인 거잖아요.” 다양하니까 다양하지“에서 그치지 않고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현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혜 똑같은 옷을 입고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원한 거잖아요. 누군가와 같은 거는 싫어하면서, 이런 다양성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선영 있어보이는 다양성을 원하죠. 그렇지만 사회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사회적 소외계층같은 사람들과 같이보이는 건 싫고, 우리 사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 인식된 것에 대한 다양성은 되게 불안해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보이지 않는 인식과 벽들이 문화다양성 안에 많아서 그 자체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 혹은 어떤 장소가 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혜진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진 저는 8년 전에 괴산에 왔는데 한 학년에 한 반인 작은 학교라, 다문화 아이도 있고 초소 가정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막내가 5학년이 되었는데, 새로 전학온 베트남 아이를 위해서 통역을 하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 아이가 다시 베트남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울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아이의 경험에서 봤을 때 제 아이와 그 반 전부가 참 예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겠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싸워내야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렇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는 사례들도 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승희 그럼요.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용어 정리 하나 하고 갈게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이주민이라고 표현해요. 한국에서 나고자란 우리는 선주민입니다. 중간에 한국에 온 자녀는 중도입국자녀라고 표현하구요. 다문화라는 표현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마세요. 미등록외국인, 미등록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분들이 한국에 올 때 헤엄쳐서 오지 않았거든요. 적법하게 한국에 왔지만 체류 기간이 끝나고 등록 기간이 초과됐거나 했을 뿐이에요. 등록을 못한 사람들인 거지, 불법자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용어 정리였습니다. (박수)

03. 2022 충북 무지개다리사업 부록

충청북도조례 제 4098호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0.] [충청북도조례 제4098호, 2017.11.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조사 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충청북도 문화다양성위원회)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이행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1조에 따른 지원
 4. 제12조에 따른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정책 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여성가족정책 외국인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전문위원)

-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 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도지사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3조(전문 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역협력체 운영)

-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지역협력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공간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권고 등)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권리와 관련해 1966년의 두 국제 규약처럼 인권과 기본 자유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가 승인한 다른 국제 규약들을 유념하고,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서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고 명시한 바를 상기하며, 다른 여러 목적보다 특히, 유네스코는 문자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 헌장 제1조도 상기하고,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 문화권 실천과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며,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문화 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소망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세계화 과정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문화와 문명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 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조할 특별한 임무를 인식해,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 감성적 윤리적 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다양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와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은 문화 다양성을 위한 보장이다.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 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진다. 이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써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아;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비춰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 정책은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강력한 수단인 문화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며, 운영적 지원이든 적절한 규제든 적합한 수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국제연대

제10조 세계적 창조와 배포를 위한 역량 강화

현재 세계 차원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유통의 불균형에 직면해, 모든 국가 특히,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국내 외적으로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 핵심인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공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회원국에게서 받은 위임과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

- (a) 여러 정부간 기구의 발전 전략에 이 선언문이 표명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진한다.
- (b)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개념과 목표,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 국제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 시민 사회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판단 기준과 토론장을 제공한다.
- (c) 능력이 닿는 한, 이 다양성 선언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준 설정 인식 제고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구한다.
- (d) 이 선언문에 첨부된 주요 행동 계획의 실천을 촉진한다.

<첨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특히, 아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제법적 기회를 명백히 고려하고 특히, 국가 그리고 국제차원에서 발전과 정책 수립의 효과에 대한 연관성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문화 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심화시키며,
2. 문화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상당히 기여하는 인식 증진 모델 및 협력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개념과 아울러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기본 원칙, 기준, 실천의 개념을 향상하며,
3.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의 참여와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과 실천의 교류를 강화하며,
4. 인권의 핵심 부분으로서 문화권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5. 인류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 창조 배포를 지원하며,
6. 가능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 모국어를 존중하고 - 언어 다양성을 촉진하고, 유년기부터 여러 언어를 학습하도록 장려하며,
7.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 인식을 증진하고, 이런 목적에서 교과과정 구성과 교사교육을 향상하며,
8. 지식의 소통과 전달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보호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전통적 교육 방법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도록 하며,
9. 교육 훈련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도구로서 컴퓨터 사용법(digital literacy)을 알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10.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언어 다양성을 증진하고, 개방된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11. 관련 유엔 체제와 긴밀히 협조해 발전도상국가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정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자생적 문화 상품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보급하고 발전도상국이 전 세계 교육 문화 과학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보호 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해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가 양질의 시청각 상품 개발에 기여하도록 특히, 이러한 상품을 배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수립하도록 육성하며,
13. 특히, 구전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불법 유통을 퇴치하며,
14. 전통 지식 특히,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또 환경 보호와 자연 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전통 지식의 공헌을 인정하고, 현대 과학과 지역 지식의 상승 작용을 촉진하며,
15. 창작자 예술가 연구자 과학자 지식인들의 활동성과 국제 연구 프로그램 및 협력 관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창의적 역량을 보존, 확장하도록 노력하며,
16. 현대적 창의성의 개발과 창의적 작업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확보하고,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따라 문화를 누릴 공공의 권리를 지지하며,
17.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문화 산업의 출현 혹은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 설비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며, 생존력 있는 지역 시장의 출현을 육성하고, 이러한 국가들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과 국제 유통 네트워크에 배포되도록 도우며,
18. 이 선언문에 담겨진 원리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운영 지원 협정 그리고/혹은 적절한 규정 체제를 각 국가에 부과된 국제적 의무에 합당하도록 개발하며,
19.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민 사회를 적극 참여케 하며,
20. 민간 부문이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촉진하며, 이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대화 창구를 수립한다.

회원국은 이 행동 계획에 설정된 목적을, 유네스코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고려할 것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상승효과를 확대하려는 시각을 갖고 유엔 기구, 기타 다른 정부간 단체, 비정부단체와 협조할 것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권고한다.

